

- 1. 토양:** 수분과 거름이 적당하면서 배수가 잘되는 토양
- 2. 심는 위치:**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곳(최소 4시간)  
바람이 거센 언덕, 담벼락이나 큰나무 아래 같은 그늘진 곳은 부적합(겨울에 동해나 냉해를 입을 수 있음)
- 3. 장미 심기 :** 식재간격은 정원장미는 1주/60cm, 덩굴장미는 1주/100cm.

## 화분에 심기

- ① 지름 60cm 정도 화분 준비(외부에 둘 경우 토분이 좋음)
- ② 배양토(상토) 1: 일반 흙 3~4의 비율로 화분 조성
- ③ 접목부위가 지면에 살짝 노출되도록 심는다
- ④ 심은 후에는 물을 흠뻑 준다

## 정원에 심기

- ① 직경 30~40cm 정도로 구덩이를 준비한다
- ② 파낸 흙에 발효퇴비 ½샵 정도를 섞어 화분에 꺼낸 상태 그대로 심는다
- ③ 심은 후에는 물을 흠뻑 준다
- ④ 장미나무 그루 둘레에 피복제(우드칩, 톱밥, 부직포 등)를 깔아준다



## 4. 물주기

- ① 장미를 심은 후 3~4주 동안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자주 물을 주어야 한다
- ② 물주는 시간은 오후나 저녁 시간은 피하고 아침에 주는 것이 좋다
- ③ 물을 줄 때는 잎이 아닌 뿌리 쪽으로 충분히 준다(※저녁 때 잎에 물을 줄 경우 노균 발생 위험)
- ④ 뿌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는 땅이 말랐다 싶을 때 주면 된다

## 5. 비료 주기

- ① 처음 나무를 심을 때, 혹은 심은 후 발효퇴비를 ½샵 정도 준다
- ② 시기별 비료주기  
봄 성장기: 퇴비와 수목용 고형비료, 개화촉진제  
여름 이후: 원예용 복합비료,  
가을철: 개화촉진용 엽면시비용 비료(엽면 시비는 뜨거운 날은 피해야 한다)

## 6. 전정작업

### 전정위치

- ① 줄기에서 장미포기 바깥쪽 눈을 적당한 높이에서 찾아낸다.
- ② 눈 위에서 1cm 이하로 짧게 자르면 줄기가 말라서 눈까지 죽을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③ 반드시 바깥쪽 눈을 찾아내어 전정을 해야만 새로 나온 가지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된다. 만일 새싹이 안쪽으로 나게 되면 줄기가 서로 엉키게 된다.

### 전정방법

- ① 강 전정 : 장미 줄기를 3~4개 남기고 30cm 높이에서 자른다. 꽃이 크게 피게 하는 방법이다.
- ② 보통전정 : 5개 이상의 줄기를 남기고 50~60cm 높이에서 자른다. 강 전정에 비해서 꽃이 많이 달린다.
- ③ 약 전정 : 줄기의 1/3 정도만 잘라내는 방법이다. 큰 덩불의 짧은 꽃대에 꽃이 무성하게 달린다.

### 계통별 전정방법

- ① HT계 : 가지의 수를 적게, 깊은 듯이 잘라준다.
- ② FL계 : HT계 보다 약간 얇게, 가지수는 많게 남김
- ③ CL계 : 일반적인 장미목처럼 전정은 하지 않음. 꽃이 끝난 가지를 제거하고, 가지의 수가 너무 많아 포기가 겹치는 경우는 되도록 묵은 가지부터 제거
- ④ MIN계 : 가을에는 가지의 수를 줄여 그루의 절반 정도로 하는데, 가지치기는 가지의 끝을 잘라주는 정도로 얇게 실시

### 장미 전정할 때 유의사항

1. 줄기 절단면의 속색이 갈색이나 회색이 아니고 흰색인지 확인한다.
2. 모양이 좋지 않거나 가느다란 줄기는 잘라낸다./ 3. 교차지나 약한 것을 잘라낸다.
4. 안쪽으로 뻗은 것은 제거한다./ 5. 흡지(sucker)나 도장지(water sprout)는 30cm 위치에서 잘라준다.
6. 건강한 줄기만 기르기 위해서는 속가지치기(thinning out), 끝가지치기(heading back)를 잘 해야 한다.

\* 전체 나무수형 중 60%의 엽면적을 남겨야 한다.

## 덩굴장미의 전정요령

- ① 덩굴장미는 목은 줄기에서 새 가지가 자라나 그 가지에서 꽃이 피므로 건강하고 긴 목은 줄기(목질부분 포함)를 남겨둔다
- ② 약한 가지를 잘라내고 남겨둔 가지도 끝부분은 가늘어서 세력이 약하므로 잘라낸다.
- ③ 우선 땅 위에서 새로 나온 젊은 줄기는 1m 내외에서 잘라준다.
- ④ 덩굴장미는 가지를 수평으로 유인할수록 꽃을 많이 피우고 수직으로 유인할수록 꽃이 안 피는 성질이 있으므로 밑으로 향하는 가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 개화 후 꽃줄기 전지요령(\*가장 중요한 작업)

- ① 꽃이 피고 난 HT 계통의 꽃줄기는 통상 꽃송이 밑에 1매엽 1장, 3매엽 2~3장, 그 밑에 5매엽(본엽)이 붙는데 통상 첫 번째 5매엽 바로 밑을 잘라주는 것이 기본요령이며 그 후 45일이 지나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또는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의 5매엽 기준으로 3~4번째 위를 잘라준다)
- ② 또한 첫 꽃이 지고 난 후 장마철을 전후해서 뿌리부분(아접부분)에서 왕성한 세력의 굵은 햇순이 2~3개 힘차게 자라는데 이것을 도장지(Shoot)라고 하며, 이 가지는 그 해 여름, 가을 그리고 이듬해 봄에 탐스런 꽃을 피우는 가지이므로 30cm 정도의 길이에서 전지.

## 가을에 꽃을 피우는 요령

- ①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는 장미꽃을 피우기 적합한 이상적인 기후이며, 가을 꽃을 피우기 위한 전지요령이 중요하다.
- ② 꽃이 피는 일정을 감안 8월 10일 ~ 8월 20일 사이에 올 봄부터 자란 가지 중 아주 약한 가지는 기부에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주 전체의 2/3나 3/5의 높이에서 전지해주면 45일 후인 9월20일부터 10월 서이에 탐스런 장미꽃을 피울 수 있다.
- ③ 여름에 노균병 등에 하엽이 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7. 병충해 관리

주요 병충해	방제
파방나방	 <p>주로 배추 등의 채소류에서 발생되나 장미나무에도 7월부터 발생하여 줄기, 잎, 꽃봉오리를 먹는 대표적인 해충이다. 파방나방은 장미나무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앞 뒷면에 알을 낳아 유충으로 부화된다. 따라서 나방의 활동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파방탄', '에이팜', '버티맥' 등의 농약으로 방제하여 한다. 파방나방은 알과 유충시에 방제하여야 효과와 있다. 성충이 되면 농약의 자극을 받으면 땅으로 떨어져 농약방제 효과가 없다고 한다.</p>
진딧물	 <p>'아타라', '베테랑', '코니도' 등의 입제 중 1가지 선택 장미나무 뿌리 주변에 2g정도 모래처럼 뿌려주면 장미나무 뿌리가 약제를 흡수하여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약 6개월간 지속됩니다. 따라서 매년 봄 4월초~4월말경에 살포하여 주면 된다.</p>
꽃노랑 총채벌레 등	 <p>아센드 1천배 액, 에이팜 1천배 액을 3일 간격으로 2-3회 연속 살포한다.</p>
각지벌레,	 <p>장미흰각지벌레(개각충)(상) 방제법: 겨울철 석회유황합제를 반드시 살포하며, 생육기에는 '수프라사이드'등을 살포하며 나무가 몇그루 안 될 경우 치솔등으로 문지르면 된다.</p>
흰가루병	 <p>방제약은 '해비치', '풍요론' 또는 '트리후민' 등 살포</p>
흑반병	 <p>'포리람' 또는 '알리어테' + '베노밀' 또는 '벤레이트'를 혼용 살포.</p>
노균 등	 <p>일교차가큰 환경에서 발생되며 잎이 잿빛으로 변화며 나무잎이 떨어진다. 예방 및 방제약으로는 "이코선", "미리카트", "포리람", "알리어테"등이 있다.</p>

※더 자세한 사항은 로즈팜 홈페이지(<http://blog.daum.net/rosefarm>) 장미병해충 사진 및 장미병해충방제 란 참조

8. 상담 및 문의 : 010-4066-7275/rosefarm1@hanmail.net